목포대서 '섬의 정치학' 학술대회 열린다

25·26일 이틀간

해양개발·영토분쟁 등 도서정책 중요성 알리기도

독도와 쿠릴열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이들 섬의 공통점은 한국과 일본, 일본-러시아, 중국-일본간 영토분쟁이 심화된 곳이다.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은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역시 중·일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개발 대상지로서 섬과 국가영토로서의 섬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5~26일 목포대에서 '섬의 정치학'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사)한국정치학회(KPSA)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 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체계적인 도서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제로 구성된다.

학술회의 주제 발표는 ▲도서개발 정책의 실상과 합리적 방향(신순호 목포대 교수)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 신구의 개발정책(김덕수 군산대 교수) ▲동아시아 도서 현안과 해결 방안(유하영 동북아 역사재단 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 신순호 교수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국내 도서개발 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을, 김덕수 교수는 중국 절강 주산군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이 해양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과 목적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유하영 박사는 동아시아 섬과 관련해 국가들간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목포대 이동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서문화연구원의 섬 연구자인 홍선기·김경옥·최성환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도서 개발정책과 섬을 둘러싼 국제 분쟁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다도해를 사랑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1983년 설립된 이후 국내외 섬과 해양문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연구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도서해양 전문학술지인 '도서문화'와 국제 저널(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을 펴내고 있다.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문의 사회적 파급을 위해 '찾아가는 섬 포럼'과 '도서해양 아카데미' 등도 진행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국 도기명인들 목포서 실력 발휘

제6회 도자기 전국공모전 순천 이선미씨 대상 영예

대상 이선미 작 '조합'

'제6회 목포 도자기 전국공모전'에서 이선미(순천시)씨의 작품 '조합'이 대상(전남도지사상·상금 8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목포시장상)은 신순미씨의 '오리들의 나들이'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송영준씨의 '사각면체로의 집적'과 박청효씨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 입상했다.

이외에 특선 10명과 입선 118명 등 총 132명이 입상했다.

목포시가 도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도예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한 결과 역대 최다인 226점이 응모했다.

심사위원장 김옥수 도예명장은 "올해 응모작품들의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며 "대상 작품은 도자 그릇들을 조합해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十長生) 가운데 하나인 사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도자의 특성을 매우 잘 살려낸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축제 즐기면 관광지가 공짜

무안, 연꽃·갯벌축제 연계 관광객들에 무료입장권

"축제도 즐기고, 관광명소까지 무료로 입장하세요."

무안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무료입장권을 나눠줘 연계관광을 유도하는 '축제 연계 관광지 프리패스(Free-Pas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안군은 "연꽃축제와 황토갯벌축제에 참가한 유료체험 관광객은 관내 유료 관광지인 호담 항공우주전시관과 무안 생태갯벌센터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목포·신안·함평 등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인근 도시 축제 관람객에게도 '프리패스'를 배부해 무안지역 관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프리패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안군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하거나,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에게는 축제평가 보고시 추첨을 통해 특산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프리패스 셔틀버스'를 운영해 축제장 유료체험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안군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프리패스'가 인근 지자체와 상생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업소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나이팅게일 선서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최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촛불의식을 갖고 있다. 예비간호사 66명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촛불처럼 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목포대 제공〉

해남군 다음달 두륜산 녹차밭 개방

하루 1kg 무료찻잎따기

해남군이 5월 한 달간 두륜산 녹차밭을 개방한다.

해남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에 조성된 녹차 밭을 개방, 찻잎을 따고 직접 체험실에서 녹차를 가공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녹차 밭은 6만6120㎡에 14만 주의 녹차 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지난 2006년에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곳이다.

녹차를 따거나 가공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방기간 중 1인당 하루 1kg 이내에서 무료로 찻잎 따기가 가능하다.

채엽(採葉) 후에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에 위치한 체험장에서 덖음과 비비기 과정을 거쳐 차로 가공할 수 있다. 1인당 체험비용은 3000원이다.

체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체험에 사용되는 장갑 등은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두륜산 녹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친환경 녹차 밭에서 가족과 함께 녹차를 따고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061-533-0088)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전북

남원 구간 '섬진강 지킴이' 최학국씨와 유머가 있는 표지판.

"유머표지판으로 환경 지켜요"

'섬진강지킴이' 최학국씨

"할아버지, 할머니!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치워야 하나요?"

영산강 환경유역청 소속 '섬진강 환경 지킴이' 최학국(62)씨는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남원구간의 섬진강가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머가 있는 표지판도 그 중 하나다. 그동안 남원시가 경고 및 처벌규정을 적은 경고판을 설치해 왔지만 이를 읽어보는 주민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씨는 유머 있는 표지판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최씨는 어린이들을 모델로 삼아 경고판을 제작한 후 요천변 등 2곳에 세웠는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3년 사이 20여 곳으로 늘렸다. 남원시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오래전부터 섬진강가에 형성된 자연마을 주민들은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강가에 버려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매년 장마철 때면 모든 쓰레기가 모두 강물에 쓸려가기 때문이다.

최씨는 유머가 있는 표지판을 세우는 등 섬진강 환경보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나선결과 주민들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었다. 실제 남원구간 섬진강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현재 '섬진강 환경지킴이'는 모두 16명. 최씨 등 3명이 대강면 금탄리에서 송동면 남평리까지 12㎞ 길이의 남원구간 섬진강을 담당하고 있다.

최씨는 "고발이나 처벌 대신 계도위주와 교육으로도 충분히 '섬진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름다운 섬진강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에 산·학·연 지원센터 들어선다

신정동 첨단과학단지 내 연구실·기숙사 등 설치

정읍 산·학·연 협력 지원센터 조감도.

'정읍 산·학·연 협력 지원센터'(이하 산·학·연 지원센터)가 정읍시 신정동 첨단 과학산업단지내에 내년 들어선다.

정읍시와 전북대학교는 첨단 과학산업단지내 부지 9917㎡에 연면적 8300㎡ 규모의 산·학·연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총사업비는 175억7100만원(국비 123억원, 도비 7억원, 시비 14억원, 전북대 31억7100만원)이다.

교육연구 시설과 기업연구실 및 기숙시설 등이 들어설 산·학·연 지원센터는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교육부의 기본계획 심의조정을 거쳐 건립 추진단 구성과 설계 용역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산·학·연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정읍지역의 국책연구소의 장비 등을 활용한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등 글로벌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우수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기반조성 단계)→2단계(도약 및 성숙단계)→3단계(안정적 성장단계) 등으로 나눠 산·학·연 지원센터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산·학·연 협력 핵심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학·연 지원센터 건립과 학·연 협력 연구 인력양성을 위한 융합과학 기술대학원(가칭)을 설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는 산·학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및 교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생태계 조성 등 실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3단계는 산·학·연 협력과 혁신 결과가 지역발전과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지고, 기술혁신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우뚝 서게 된다.

이와 함께 산·학·연 지원센터는 ▲산단 인력양성 ▲학·연 공동연구 ▲기업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무화과·여주 등 기능성 작물 집중 육성

기온온난화로 재배 가능 농가소득·품질 향상 기대

순창군이 기능성 작물인 무화과와 여주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무화과는 단맛이 강하고 효소와 섬유질·단백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여주는 혈당을 강하시켜 당뇨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무화과는 전남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었으나, 기후 온난화로 재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순창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무화과를 하우스에서 양액(養液) 재배 기술을 이용해 재배하면 상품의 품질과 수량을 높여 농민들의 소득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는 생과 뿐만 아니라 즙과 환 등 가공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장수(長壽)의 고장인 순창의 명성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말에 무화과 양액 재배와 여주 재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앞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며 "향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생산해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육성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전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부장관 기관 표창

전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장 임경진)가 2013년 여성 일자리 추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또 노후기자재 교체비로 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취업률과 취업자 수, 고객만족도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여성 새일센터 평가'에서 전주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A등급을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인턴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친환경농산물센터 서울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남원 원예농협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가 최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관한 '서울시 영양 플러스 사업' 공급업체 공모에서 단독 선정됐다.

'서울시 영양 플러스사업'은 소외계층인 유치원과 경노당 등에 일반 농산물 대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말까지 친환경 재배한 감자와 고구마·당근·애호박 등 12개 품목을 공급해 연간 15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시장버스 내일부터 정상 운행

지난 16일부터 전면 중단됐던 순창시장 버스운행이 26일 장날부터 정상 운행된다. 이번 사태는 순창군의회가 지난 11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의결하자 임순여객(노조)의 반발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버스운행이 중단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황숙주 군수가 지난 23일 임순여객을 방문해 버스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 버스노조 측이 이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임순여객 노동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국악예술단 고창'-BS투어-석정휴스파 홍보 MOU

고창지역 전통예술 공연단체인 '국악예술단 고창'(대표 오승일)은 지난 23일 여행전문업체인 BS투어(대표 김복자), 고창 웰파크시티(대표 이종균) 석정 휴스파와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악예술단 고창'은 '광대 열전 2' 공연을 통해 BS투어의 고창 관광상품 개발 및 브랜드 홍보에 협력하고, BS투어는 예술단 고창의 공연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석정 휴스파는 '착한 티켓'을 별도로 제작해 공동마케팅을 펼친다. '광대 열전 2-대단한 탄생'은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리는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